

정부, 광양항 활성화 적극 나서야 대불산단 휴·폐업률 전국 19배

부산항과 투포트 시스템 유지·이용 화물 인센티브 제공 등

지난 2008년 0.8%서 올 6월 3.8%로 상승... 36개 문닫아

김영록·황주홍 의원 국감 지적

해양수산부에 대한 14일 국감에서 “광양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부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날 “광양항 반출입화물 중 호남권에서 유발되는 화물량은 126만 TEU(2009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인데 부산항의 연남권 유발화물량이 연간 400만 TEU이며, 또 부산항의 국내화물 유입량 433만 TEU 중 광주 13만4000, 전남 20만 2000, 전북 17만1000, 충남 22만8000 등 총 73만5000TEU가 광양항이 아닌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깝고 비용이 싼 광양항을 배제하고 부산항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광양항 활성화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취약한 배후산업기반”이라며 “부산항을 이용 중인 호남·충청권 화물을 광양항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화물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물류를 기준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을 비교했을 때 1만TEU를



광양항의 20선석 가운데 14선석의 광양컨테이너부두는 연간 460만TEU를 처리할 수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물동량은 215만TEU로,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기준으로 광양항이 연간 22억8000만원이나 적잖을 수 있는데도 광양항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또 정권 차원에서 부산항에 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산항의 물동량을 광양항으로 옮겨오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큰 이익이 되는 만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투포트 시스템’ 육성이라는 항

만정책 기조와 달리, 과거의 해수부와 이관된 김대중 정부의 국토부와 이번엔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투포트 정책 포기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며 “광양항은 부산항과 함께 1만8000TEU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국내 2대 항만일 뿐만 아니라 물동량 처리기준으로 세계 17위, 국내 2위의 항만으로 국가 항만정책 기조로서의 양항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동철 의원 국감 지적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의 상징으로 삼던 영암 대불국가산단의 ‘전봇대 뽑기’가 5년째 제자리에 머무르는데, 이 기간에 중소기업의 휴·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봇대 뽑기’가 5년째 진행 중인 대불산단의 중소기업 휴·폐업률은 전국 평균의 최대 19배 수준에 달했다.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는 2008년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한전 2억3100만원을 비롯해 영암군과 기업체가 각각 1억1600만원씩 분담하는 총 사업비 4억6300만원 규모로 일부 전봇대 철거와 전선 지중화 등 기반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형 구조물 운송에 장애가 되는 입주업체 공장 정문의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은 건의한 지 5년째인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전봇대 뽑기가 진행되면서 중소기업 규제 개혁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정작 지난 5년 동안 대불산단 입주 중소기업 중 휴·폐업한 업체는 모두 36개에 달했다.

대불산단 휴·폐업률은 지난 2008년 0.8%를 시작으로 2009년 2.3%, 2010년 2.0%, 2011년 2.3%, 올해 6월 현재 3.8% 등 매년 전국 평균보다 적게는 3배에서 최대 19배나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중소기업의 휴·폐업률은 2010년 0.5%가 최고였으며 올해는 0.2%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휴·폐업은 곧바로 수많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불산단 ‘전봇대 뽑기’ 호들갑은 이명박 정권의 ‘보여주기식 중소기업 정책’의 한계만 드러낸 대표적 할리우드 액션이므로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가 성공하려면 실패한 전봇대 뽑기 이벤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2008년 4월 한국전력 영암지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영암 대불산단의 휴스틸 사거리에 위치한 전봇대 1개를 뒤로 3m 가량 옮긴 후 전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산물 소비 위축에 유통업계 팔 걷었다

롯데슈퍼, 어민·협력업체와 ‘수산물대전’ 이마트, 갈치·고등어 등 50% 할인판매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자 지역 유통업체가 팔을 걷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국내산 수산물 매출이 감소하자 각종 할인행사를 벌이는 등 소비촉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암규제에다 수산물 매출 감소라는 겹악재를 만난 대형마트는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과 손을 잡고 연일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롯데슈퍼는 어민, 협력업체와 함께 16~22일 ‘수산물대전’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 우려에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다. 햇수산물 뿐만 아니라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상품 등 총 50여종을 할인한다. 대표 품목으로 햇생굴(150g·2봉)을 40% 할인한 2990원에, 서해 꽃게를 25% 할인한 990원(100g)에 각각 판매한다. 건어물의 경우 ‘1+1’ 행사를 벌인다.

일자별로 한정 할인 상품을 판매해 최대 66% 할인한다. 행사 첫 날인 16일에는 생물 오징어를 40%, 17일에는 제주 생물 갈치(3마리)를 30% 할인한다.

이마트도 산지 수협과 협력해 지난 14일까지 갈치·고등어·굴을

최대 50% 할인하는 소비촉진 행사를 벌였다.

이마트의 지난달 수산물 매출은 작년보다 약 14% 줄었다. 일본과 가까운 동해에서 생산되는 갈치(-25%), 고등어(-27.8%)의 경우 감소폭이 훨씬 컸다.

아예 방사능 걱정이 없는 수입 수산물 판매 행사도 강화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지난 2일부터 약 1주일간 미국산 ‘살아있는’ 랍스터를 마리 당 9700~9900원에 판매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할인 행사와 캠페인을 실시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벌일 것”이라며 “수입 수산물도 매출을 보전하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지지원사업 점검 등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농어촌공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15일 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지사장과 팀장 등 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2013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매출액 등 경영현황점검 ▲농지지원사업 추진실적 ▲정부권장 정책 이행 등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부진업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또 각 지사별 주요업무 보고 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실적을 점검



하는 한편 문제점 점검을 통해 대안 수립을 위한 핵심 추진전략을 세우는

등 경영목표달성 의지를 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농산물 가격 내림세... 오이·대파만 상승

광주지역 재래시장에서 오이와 대파를 제외한 대부분 채소와 과일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가 발행하는 광주·전남 농산물 가격정보 소식지 ‘얼마오’에 따르면 14일 현재 광주 양동시장을 기준으로 대파는 1kg에 2500원으로 1개월 전의 2000원보다 25%, 오이는 10개에 6000원으로 1개월 전의 5000원보다 20% 각각 올랐다.

이는 출하기 공급 불안정과 햅쌀철 김밥용 부재료 등 소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배추는 1포기에 2500원으로 1개월 전 5000원의 절반으로 떨어진 것을 비롯해 청상추(100g 700원) -22.2%, 애호박(1개 1000원) -16.7%, 풋고추(100g 500원) -28.6% 등 대부분의 채소류 가격이 내렸다.

또 사과(홍로)는 10개에 1만5000

원으로 1개월 전의 2만1500원보다 30.2% 하락한 것을 비롯해 배(신고 10개 2만원) -23.1%, 방울토마토(1kg 5000원) -16.7%, 수박(1개 1만 5000원) -16.7% 등 과일류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 밖에 건멸치 -15%, 고등어 -6.7% 등도 하락세를 보였고, 쌀·무·건고추·간마늘·양파·쇠고기·돼지고기 등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비타민하우스 멀티비타민

웰플러스로 건강을 PLUS+ 하세요!

- 비타민 13가지 + 7가지 미네랄 함유
- 비타민 B군 일일권장량 100% 함유
- 친환경 유기농 부원료 40가지 함유
- 설탕, 인공색소, 중국산 원료 무첨가



우리가족 건강 지킴이

하루에 한 알 WELL PLUS+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미네랄 보충용 제품) 1,250mg x 60정 (1병 2개월 분량), 1일 1정을 씹어서 섭취(혼합 베리맛)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를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구입문의 1588-8529